

보도시점

2026. 4. 23.(목) 08:00

4. 23.(목) 석간

배포

2026. 4. 22.(수) 14:00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우리 육가공품 베트남 수출 검역·위생협상 타결

- 농식품부·식약처, 베트남 농업환경부와 열처리 가금육 검역·위생협상 최종 타결
- 농식품부, 한-베트남 간 검역 협력 MOU 체결로 여타 품목 수출 협상 가속화
- 110억불 규모의 베트남 육류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 식약처, 아·태지역 식품규제기관 협력을 통해 베트남 수출 협상 결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26년 4월 22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열처리 가금육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5년 기준 인구 1억명을 돌파한 동남아시아의 핵심 소비 시장으로 육류 시장 규모는 110억불, 연평균 9.6% 성장 중(2020년 77억불 → 2024년 110억불)인 수출 유망 국가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2017년부터 가금육으로 만든 햄, 소시지, 삼계탕, 너겟 등 다양한 육가공품의 베트남 수출을 위해 베트남과 검역·위생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육류 소비 증가, 식생활 편의성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맞물려 육가공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K-푸드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내 업계의 수출 의지 또한 높아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열처리 가금육의 수출 전망은 밝다고 예상된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수출이 가능해 진 국내 작업장(가공장)은 총 2개소(하림, CJ제일제당)로 해당 작업장은 베트남 정부의 심사를 거쳐 우선 승인되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향후 대(對)베트남 수출 작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4월 21일 베트남 농업환경부 쩌넌 비엠흥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열처리 가금육 검역조건 합의 등 수출에 필요한 양국 간 검역 절차를 베트남 현지에서 모두 마무리 짓는 등 협상 타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송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농업환경부와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수출 촉진을 위한 양국 간 정보 공유와 전문가 교류, 소통 강화 등 협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베트남과 진행 중인 한우, 열처리 돼지고기 등 타 품목에 대한 수출 협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식약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기관(아프라스*) 의장국으로 활동하며 회원국인 베트남과 전략적 식품규제 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해썹(HACCP**)을 도입하여 베트남 시장에 “K-푸드=안심”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등 다층적인 노력을 하였다. 이에 베트남과 진행 중인 다른 K-푸드의 수출 협상도 신속히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 해썹업소가 고의적·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현재 해썹 기준에 식품 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및 식품안전경영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수출 타결은 정부의 적극적인 검역 협상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로서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축산물 수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협상 타결된 열처리 가금육 제품이 베트남으로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우리 K-푸드가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수출 길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이번 베트남 수출 협상 타결은 단순한 시장 확대를 넘어, 식약처가 추진해 온 규제 외교와 글로벌 식품 안심 정책이 실제 수출 성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고 라면서 “아프라스를 통한 국제 협력과 글로벌 해썹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K-푸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축으로 활용하여, 한국 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실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수현	(044-201-2071)
		담당자	사무관	박제민	(044-201-2072)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호	(043-719-2170)
		담당자	사무관	안동성	(043-719-2169)